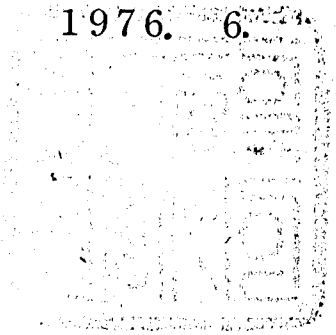
毛·周以後 中共의 權力鬪爭과 政治動向

1976. 6.



439

國 土 統 一 院

目　　次

1. 問題의 提起 3
2. 周恩来의 政策路線 5
3. 華国鋒의 등장과 毛沢東의 意図 11
4. 새로운 理念闘争의 様相과 그 幅 14
5. 毛·周 以後의 後継問題 19
6. 影響判断(有関国 関係) 21
가) 対外政策의 基本方向
나) 対蘇関係
다) 対美関係
라) 対日関係
마) 対韓半島 関係

1. 問題의 提起

가. 周恩来의 死亡 (1976. 1. 8)

1) 林彪의 反蘇反美路線에 대해 周恩来는 反蘇和美노선 지향

2) 文革派의 革命性에 대해 周恩来는 穩健的인 現実主義

3) 70年代 中共의 対内外 政策을 周恩来가 主導

4) 그의 死亡으로 中共의 路線闘争, 権力闘争 고조

나. 華国鋒이 国務総理署理로 부각 (1976. 1.)

1) 周恩来 死亡 即後 鄧小平의 首相説 抬頭

2) 江青派의 勢力強化 豫想

3) 華国鋒의 등장은 毛沢東의 配慮에 依함

4) 華国鋒은 毛沢東에 充実한 中道派

다. 反走資派의 理念闘争의 展開

1) 北京,上海를 비롯 全国的 規模로 理念闘争拡大

2) 이 運動은 資本主義, 수정주의 傾向批判

3) 強硬派의 主導로 現実的인 権力闘争化

4) 第2文化革命化로 対内外 混乱 豫想

라. 닉슨 前 美大統領 中共訪問 (1976. 2.21.-29)

1) 美·中共関係의 새로운 展開

2) 華国鋒의 問題로 鄧小平의 近況 疑問

3) 中共의 理念 및 権力闘争 양상점고

마. 最近 中共情勢가 韓国에 미치는 영향도출

1) 中共情勢의 不安은 中蘇紛争에 크게 影響

2) 中蘇情勢의 悪化는 韓半島 情勢에 影響

3) 毛沢東 以後를 대비한 権力闘争은 70年代 東亜細亜 情勢에 影響

4) 따라서 中共의 情勢를 예의 注視하여 이에 能動的으로 対処할 対北政策樹立에 寄与

2. 周恩来의 政策路線

가. 文革後의 政治動向

1) 文革時 毛沢東의 軍,党幹部 大衆組織의 3結合은 林彪의 得勢로 軍一色化됨으로써 軍의 政治的인 影響增大

2) 文革으로 피폐된 經済再建 時急

3) 生産의 極大化를 為해 物質的인 인센티브 許容 不可避

4) 蘇聯危脅에 効率的인 対処時急

5) 紅衛兵 下放, 文革派는 疎外

나. 林彪事件 以後

1) 林彪의 反蘇反美 路線은 現実性 欠如

o 潜定的인 反蘇反美는 가능하나 現実的으로 両 超大国에의 対抗은 不可

2) 毛沢東도 周恩来의 反蘇和美政策 支持

가) 70.12. 에드가 . 스노우에게 毛沢東은 周恩来가 国内外 政治에 主役이라 指摘, 林彪에 対한 言及 回避

나) 70.10 毛沢東은 心服들에게 周恩来路線 '支持권유

다) 71. 5. 닉슨 中共訪問 発表, 키신저 中共訪問

3) 文革派 去勢, 実務派 大挙復帰

가) 陳伯達의 숙청 (70. 8. 1. 建軍日 参席이 最後)

나) 1971. 5. 江青은 陳伯達을 "늙어빠진 가짜 마르크스주의자라 비난"

다) 林彪, 陳伯達 康生의 臥病으로 政治局에 対한 周恩来의 影響力增大

다. 開放外交

1) 強·穩派間의 政策路線闘争 漸次 노골화

가) 72. 1.부터 復帰幹部에 대한 毛沢東思想 学習

72.1.31 人民日報, 마르크스, 레닌주의, 毛沢東思想学習強調

o 党路線強調하면서 毛路線 적게 취급: 穩健派

o 党路線 強調하면서 党路線의 把握이 毛路線의 執行: 중도파

o 당노선의 基本은 階級闘争이라 強調: 強硬派

2) 周恩来路線의 実現으로 蘇聯의 威脅減少, 中共의 対内外影響, 能力增大, 経済条件 改善

가) 3個의 노선 闘争에서 72.8.부터 노선강조 뜸해짐(穩健派의 得勢로 看做)

나) 71.10.유엔加入, 美, 日과 協力으로 蘇聯의 威脅減少, 潜在化

다) 貿易의 急增(73年: 76.5億$). 대외차관 導入(73年: 62件 12億$)

73年 食糧 2億5千6百萬톤, 化学肥料 9千4百萬톤 生産準需給状態

라) 72.12.毛沢東 生日이 紀念日에서 빠지고, 毛思想 強調도 弱化됨

3) 劉少奇政策 路線과 유사하다는 強硬派 불만요인 증대

가) 실무파의 대거復帰 党의 建設에 따른 政策執行試図

(張平化:江青은 생각만해도 화가 나는 놈: 72.8 復帰)

나) 生産増加 経済主義, 資本主義 要因 投入

다) 近代化의 促進은 가속하나 理念的인 強度는 사뭇 弱化

4) 西方要因의 침투는 住民의 価値観에 混乱招来

가) 美日의 요인침투증대에 反美, 反日思想混乱

나) 젊은 世代의 반서구 감정 혼란

다) 強硬派, 長征派, 중도파의 반발 招来

5) 現実的인 政策의 추구는 物質자극 증대, 実務派의 대거복귀

가) 周恩来의 路線은 劉少奇의 그것과 유사하나 조심스럽게 극대화를 避함

나) 구사회의 요인증대 (71.6. 人民日報 社会象 비난)

다) 毛後継闘争 (10전 대회겨냥)에서 強硬派 유리한 여건조성 위해 周路線 비방

라. 批林批孔運動

1) 10全 大会

가) 73. 8. 10전대회는 後継問題 유보로 穏健派 影響力 増大

나) 5名의 부주석단을 집단지도 체제 지향기운 증대

다) 73.9. 批孔小組의 결성으로 周恩来攻撃 개시

2) 批林批孔과 各派의 意図

가) 毛沢東의 意図

o 계속 革命의 達成을 위해 現 政策 方向체크

o 毛沢東의 象徵化 防止 考慮

나) 強硬派의 立場

o 文革後 上海를 거점으로 활약

o 現段階에서 後続闘争은 급진파에게 有利하다고 看做

o 革命요인의 침체는 毛沢東과 上海派 불리

o 実務派의 復帰, 서구요인의 침투에 반발

다) 穏健派의 立場

o 粛清된 간부의 大去復帰로 영향력 増大

o 国防, 외교 경제등 제반정책에 크게 성공

o 現実的인 政策은 毛沢東을 保護하고 周恩来를 維持시킴

3) 批林批孔 運動의 양상

가) 混乱과 統制의교차

o 74.5. 三気周郎의 소개로 周恩来지지 (三国志 三気周郎)

o 74.4.方始의 간언으로 周恩来攻撃 (方始의 諫言)

나) 73.12.지방군구사령관의 대거이동으로 친모파 유리 (광동, 상해, 장춘)

다) 強硬派의 주도에 따른 개시, 당중앙의 統制로 평온히 전개

라) 批孔을 周의 겨냥으로 안 周恩来는 批林과 한대 묶어 스스로 주도

o 73.10.紅旗 : 石倫의 尊儒反法을 논함

o 74. 2. 2, 人民日報: 徹底한 批林批孔運動의 고조

o 74. 3.24. 무한에서 무력충돌

o 74. 5. 李德生 비난 대자보

o 74. 6.20 강서성에서 무력충돌 200명 死亡의 대자보

美.日非難記事

o 74.12.15 党中央委가 運動終結을 決定

마) 4기 人民代表 大会 以後

(1) 鄧小平의 지위강화는 周恩来政策의 支持

(2) 75.1.4人大는 周恩来, 葉劍英, 鄧小平등 隱建派得勢

(3) 新憲法은 私有財産의 制限的 承認(小規模의 自留地 8等級労賃制)

(4) 後継問題保留

(5) 党의 一元化된 統制의 強化로 毛沢東과 毛思想의 分離意図

o 毛沢東의 4個項指示

75. 2.4毛沢東은 新憲法을 非難하는 内容의 4個項指示

(1) 프롤레타리아 独裁強調

(2) 8等級 労賃制非難

(3) 8等級 労賃制는 資本主義의 指向

(4) 小規模의 生産은 부르조아부활

o 75. 2. 22.姚文元 : 人民日報에 4個項 指示를 뒷받침하는 文化革命 強調論文

o 75. 8. 홍기에 水滸伝 批判으로 鄧小平 批判展開
수호전의 批判으로 漸次 周恩来, 鄧小平 政策方向이 파도를 탐.

3. 華国鋒의 登場과 毛澤東의 意図

가. 1976. 1. 8. 周恩来 癌으로 死亡

1) 鄧小平의 首相説, 強硬派의 得勢説이 교차

2) 2. 6. 베네스웰라대사의 신임인사를 華国鋒 首相署理가 主宰

3) 華国鋒의 人物

(가) 나이나結婚, 자식관계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

(나) 한 資料에 依하면 1912年生으로 記載하고 있음.

(다) 華는 1949年부터 호남성 당간부로 활약(호남성상담현 출신)

(라) 1954. 호남성상담지구 당위서기

(마) 1958. 호남성부성장

(바) 1960.4 호남성 당서기

(사) 1967. 文革을 主導, 1968.7. 호남성당위 再建試図

(아) 1969.4.9 기중앙위원

(자) 1970·11. 호남성 당 제1서기

(차) 1971·11. 中央某部部長(공안부?)으로 林彪 除去에 공헌

(카) 1973·8.10기 政治局委員

(파) 1975·1. 副総理兼 공안부장

4) 華国鋒의 登場根拠

(가) 毛沢東의 革命観

(1) 延安의 経験을 全国的 規模로 拡大試図

(2) 中共의 近代化와 共産化가 동시에 必要

(3) 궁극적으로 자기 意図의 中共 建設이 目標

(4) 強·穩派를 함께 活用 相互 견제와 均衡을 試図

(5) 어느 일파의 현저한 得勢는 힘의 均衡을 깨뜨림

(나) 穩健派의 성향

(1) 中国의 近代化를 図謀하는데 必要한 実務에 밝음

(2) 党·政·軍에 幅넓은 支持와 組織을 가진 現実的인 그룹

(3) 紅(共産主義의 理念)보다 専(専門家)에 의한 統治試図

(나) 強硬派의 性向

(1)참신하고 革命性이 強하며 毛沢東의 信任이 두터움

(2) 党이나 実務経歴이 짧고, 党·政·軍의 支持가 弱하고 組織이 微弱

(3) 革命의 強調에서는 強하나 現実政策의 추구에는 취약 (근대화의 둔화招来)

(라) 華国鋒의 登場

(1) 毛沢東의 信任이 두터운 중도파

(2) 毛의 指示를 誠実히 遂行하면서 서로 反目하는 強·穩派를 活用

(3) 毛沢東으로서는 華의 登場은 強穩派의 견제를 받지만 공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看做됨.

(4) 華의 政治수완은 그의 信任의尺度가 될 것임

(5) 華의 政策路線은 毛沢東의 그것에 充実하며 強[illegible]派를 절충활용할 것을 試図

4. 새로운 理念闘争의 様相과 그幅

가. 배 경

1) 70年代 周恩来의 政策은 크게 成功한 것을 인정하나 毛의 意図에 지나친점이 있음

(가) 反蘇路線에 따라 美·日과의 協力急増

(1) 美·中共間의 軍事協力까지 登場

(2) 日·中共 75年 貿易34億$ 추계

(나) 美·日協力으로 資本主義的 傾向 침투

(1) 住民의 反美反日 思想이 해이

(2) 物質文明에 対한 동경

(다) 제한된 사유재산의 承認, 3級 所有制로 物質的 자극증대

(1) 人民公社 사원의 小規模 私有地承認

(2) 인민공사에 生産대위주의 採産制施行

(3) 8等級 労賃制의 채택은 生産増大試図

(라) 時急한 近代化의 촉구위한 現実政策은 理念的要因弱化

(1) 72.12. 毛沢東 生日이 紀念日에서 삭제

(2) 思想의 強度보다 組織에 依한 統治試図

(3) 強硬派의 継続的인 수세는 반발요인

2) 周恩来의 死亡과 함께 権力闘争要因増大

가) 75. 8. 鄧小平을 資本主義路線으로 규탄 제거시도

나) 各派의 意図

(1) 毛沢東의 意図

(가) 死後의 中共方向에 対한 整地作業

o 毛가 意図하는 方向을 위한 기반조성

o 毛의 秦始皇帝化 防止

(나) 周恩来路線이 낳은 不作用의 除去에 局限하면서

現在의 政策的인 基本方向은 持続

1. 西欧的인 要因의 除去運動 展開

2. 弱化된 思想運動의 고조시도

3. 專과 紅의 적절한 배합

4. 지나친 権力闘争을 豫防하고 생산마비의 초래방지

5. 反蘇反美政策持続

(2) 強硬派의 姿勢

(가) 반수정, 반자본, 반복고운동의 기치를 들고 生産둔화

현상까지도 불사

(나) 理念闘争을 権力闘争과 병행시켜 混乱불사

(다) 穏健派幹部를 走資派로 공격 粛清試図

(라) 得勢時는 文化革命때와 같은 混乱惹起憂慮

(마) 중도파와 야합으로 穏健派攻撃의 극대화 試図

(3) 穏健派의 姿勢

(가) 現在의 対内外 政策持続의 希望

(나) 마비없는 革命의 進行과 理念闘争의 権力闘争으로비화를억제시도

(다) 健全한 中共의 発展위해 現政策의 持続 希望

(4) 華国鋒의 姿勢

(가) 毛沢東의 指示에 充実하면서 強硬派間의 闘争의 最小化에 注力

(나) 資本主義·수정주의 傾向의 除去를 주도하면서 肅清의 最小化를 試図

(다) 闘争中에 強·穏派의 積極的인 国務遂行에의 参与를 유도

(라) 党·軍部의 폭넓은 지지 유도

나. 分析 및 展望

1) 새로운 文化革命의 性格은

가) 政治的으로는 毛·周 以後를 겨냥한 権力闘争이나, 새로운 지도체제의 정지작업이자 中共의 方向에 関係된 것이며

나) 社会的으로는 복고주의 傾向과 구중국에 대한 도전이며

다) 思想的으로는 수정주의 傾向과 資本主義의 要素의 불식운동임과 同時에 毛沢東思想의 強化運動이며

라) 経済的으로는 사유화 경향이나 物質的 자극의 許容을 反対하며, 지나친 대서방의 経済依存을 배격하는 것이며

마) 外交的으로는 開放外交를 체크하고, 蘇聯을 배격하면서 健全한 中共的인 독자성을 견지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음

바) 그렇기 때문에 毛沢東의 原則的인 支持를 받는 強硬派는 革命의 횃불을 높이 들고 華国鋒과 合勢하여 穏健派를 攻撃하려 할 것임

사) 그러나 이 運動은 毛·周以後의 權力闘爭이 現実的으로 配合되어 있기에 華国鋒의 能力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임.

아) 이 運動은 이데올로기 闘爭임과 同時에 權力闘爭이며,

자) 継続革命을 위한 精神革命을 強化하며, 毛沢東 以後를 対備하는 中共의 方向提示와 整地作業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차) 그런데 이 運動은 복고주의를 배격하고, 수정주의, 資本主義의 傾向의 불식을 외침으로써 毛沢東의 中国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카) 이 運動이 展開되는 過程에서 各派間에 엇갈리는 政策路線, 權力闘爭이라는 要因이 가미되어 있음으로 後継闘爭에 대한 関心이 점고되고 있음.

2) 展 望

가) 各派의 견해는 다르지만 70年代 들어 中共이 指向하고 있는 対内外 政策이 勢力均衡 原則에 立脚하고 있고, 政策方向은 毛沢東이 原則的으로 支持하고 있는 点으로 보아,

나) 일시적인 혼란과 生産의 둔화현상은 惹起될지 모르나 中国의 健全한 方向과 近代化를 위해서는 穏健派의 政策路線이 合理的이고 現実的이므로 이를 송두리채 破壊치는 못할 것이며,

다) 또한 치열한 權力鬪爭은 中共의 안위를 直接的으로 威脅하게 될 것이므로 최대로 억제코저 努力할 것임.
그리고 文革때와 같은 外交的인 단절은 조심스럽게 피하고자 할 것임

5. 毛·周 以後의 後繼問題

가. 一般的인 展望

1) 毛以後의 中共에 毛思想이 持続될 것인가?

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立脚한 共産主義가 소생할 것인가?

나) 民族主義的인 中国의 方向을 택할 것인가?

2) 그러나 유교적 影響이 배제된 中国의 民族主義가 가능할 것인가?

(批林批孔運動은 공자를 毛沢東 思想으로 대체하는 運動)

3) 專과 紅의 対決에서 最近 專이 優勢하고 있음.

4) 따라서 毛以後의 中共은 점차 毛沢東 思想의 強度가 낮아지면서 中国的인 要因이 増加될 可能性이 있음

가) 中国이 共産化될 것인가?

나) 共産主義가 中国化될 것인가?

다) 中国이 共産主義를 삼켜버릴 것인가?의 싸움

나. 後継問題

1) 現実的으로 強硬派가 有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당에 대한 経歷이 짧고, 組織이 허약하며, 専門性이나 管理能力이 弱하고, 党. 政. 軍의 支持의 基盤이 微弱함.

2) 穏健派는 革命性이 弱하나 実務에 밝고, 管理能力이 豊富하며 党. 政. 軍의 幅넓은 支持를 받으면서 現実的인 政策을 추구

하기에 近代化가 촉진되는 건전한 方向임.

3) 중도파는 毛沢東의 意図를 성실히 遂行하면서 強·穩両派의 主張을 절충하고, 相互견제와 均衡을 通해 毛沢東의 継続革命 方向을 추구하는 利点이 있음.

다. 問 題 点

1) 毛 死後 権力闘争의 要因이 増大되고 있음

2) 地方分権 勢力이 強化될 것도 憂慮(軍部의 支持)

3) 복고사상의 부활가능성이 있음(유교사상, 共産主義 思想変質)

4) 親蘇勢力의 影響力이 부활될 可能性이 있음
(번방소수민족, 親蘇勢力包摂試図, 軍部는 反蘇보다 反美에 関心)

5) 毛 死後의 指導체제는 軍의 強力한 支援이 긴요
과도적으로 중도파의 절충에 따라 世代別, 派閥間, 分野別 三結合의 集団指導 体制가 바람직함.

6) 毛 以後의 権力闘争의 悪化는 中国의 混乱이 豫想되지만 中国의 再分割은 조심스럽게 피하려 할 것임

6. 影響判断 (対有関国関係)

가. 対外政策의 方向

1) 毛沢東의 三分天下 思想에 따른 路線指向 : 王海容의 이스라엘에 대한언급

가) 反蘇和美路線持続 : 各個撃破 戦術

나) 중이 호랑이론과 산호랑이론에 따른 路線指向

다) 하나의 불꽃이 황야를 태운다는 式의 兄弟党 支援

나. 対蘇関係

1) 毛沢東이 살아있는 한 和解可能 희박

2) 실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範囲에서의 긴장 持続

3) 蘇聯보다 美·日과의 화해지속

4) 反蘇反美를 들고 제3世界主導試図

5) 毛沢東 以後 和解要因 상존 (군부는 反蘇보다 反美에 익숙)

6) 蘇聯의 아시아 進出抑制試図

다. 対美関係

1) 形式的 反美路線 指向, 실질적 和美路線指向

2) 理念闘争期間은 反美口号 격화 및 대미관계 소원豫想

3) 蘇聯을 견제키 위해 美国의 活用을 試図

4) 対美軍事 協力 (核武器部品, 技術導入) 希望

5) 美軍의 東아시아 주둔을 묵인?

6) 美·中共関係를 本質的으로 破壞치는 못할 것임

라. 対日関係

1) 歷史的인 적대감정에도 経済的인 보완성으로 하여금 70年代에 들어 協力이 급진

가) 1974年: 28億$ 去来, 75年: 34億$ 추계,
77年: 50億$ 상회예상

나) 中共은 資源輸出, 日本은 機械, 製品輸出 (72.9 周)

2) 日本의 対蘇接近을 견제키 위해 이를 政治的으로 活用試図

가) 시베리아 開発의 参与를 견제키 위해 中共資源 開発에 日本参与 종용

나) 北方 4島問題로 같은 피해감부각

다) 아시아 集団安保論 거부종용

3) 理念闘争 期間은 資本主義 傾向으로 親日路線 견제

4) 日·中共은 相互 견제와 競争状態로 展開될 可能性

5) 蘇聯의 아시아 進出에 대해 美·日과 共同견제希望

6) 日本의 급작스런 成長의 견제시도

마. 対韓半島 関係

1) 中蘇紛争의 現 状況에서는 中共은 北韓을 支援할 可能性이 짙음

(北韓이 蘇聯에 接近하면 後方이 威脅)

2) 台湾과 韓国問題를 結付시켜 北韓을 支援

(美軍의 駐屯때문에 台湾이나 南韓의 解放이 不可能하다고 看做)

3) 韓半島는 中共의 安保에 있어 요충지임

4) 韓半島의 赤化의 決定的인 時期를 誘導키 위해 위장평화 공세를 北韓이 取할 것을 권유가능

가) 喬冠華: 朝鮮半島에서는 조만간 戰爭을 치러야 한다고 前提하면서 그 時期는 天時, 地利, 人和를 들고 있음.

5) 表面으로는 中共, 北韓이 密着하고 있으나 実質面에선 차이를 지니고 있음.

가) 駐韓美軍을 中共은 묵인? 北韓은 絶対反対

나) 蘇聯의 軍事; 経済支援이 必要하나 中共은 反対

다) 金日成에 対한 中共의 信任은 相対的임

6) 韓国의 積極的인 接近試図는 中共과의 対話도 可能

가) 北傀를 不安케하는 韓·美強硬態度 표명을 継続하면 北傀는 蘇聯의 軍事支援 希望

나) 화교의 暫定的인 活用 (만주교포를 活用)

다) 経済的 교류부터 漸次 拡大

7) 韓国이 漸進的으로 蘇聯에 接近한다면 中共을 자극하게 될 것임